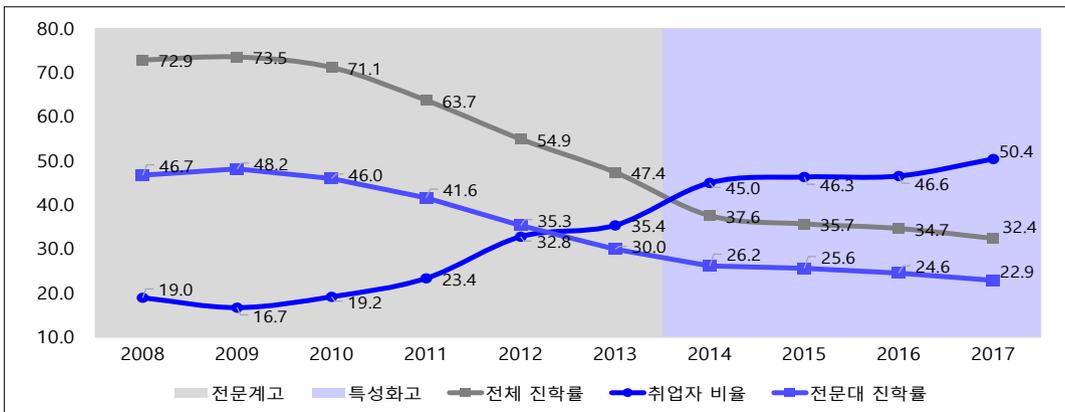


비인문계고 신규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현황

- 최근 비인문계고 신규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변화가 관찰되는데, 신규 졸업생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취업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.
 - 2008년에는 신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158,408명 중 115,407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진학률이 72.9%(전문대 진학률 46.7%)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신규 특성화고 졸업생 100,337명 중 32.4%만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비인문계고 졸업생들의 진학률 감소 추세를 이어감.
 - 비인문계고 졸업생들의 고용률¹⁾은 최근으로 올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데, 2008년에는 졸업생 중 30,036명(19.0%)만이 취업하여 20.0%를 밑도는 고용률을 보인 반면, 2017년에는 졸업생의 절반이 넘는 50.4%(46,716명)가 취업하면서 비인문계고 졸업생들의 고용률 증가 추세가 지속됨.

[그림 1] 전문계고 및 특성화고 신규 졸업생 상급학교 진학률 및 졸업생 대비 취업자 비율 추이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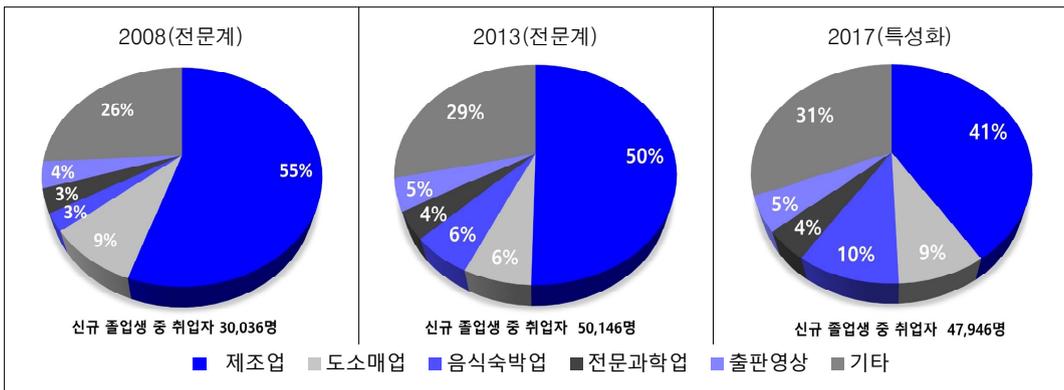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교육개발원, 「교육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1) 여기서 정의하는 고용률은 신규 졸업생 수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뜻함.

- 특성화고와 그 전신인 전문계고를 연결선상에서 비교하면 2014년에 신규 졸업생의 상급 학교 진학률과 고용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남.
 - 이는 비인문계고 졸업생들이 진로 선택에 있어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.
 - 2014년은 학제 변화로 인해 특성화고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특성화 고가 양적인 면에서 취업에 더욱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- 한편 과거 전문계 고교 신규 졸업생 취업자들에 비해 특성화고 출신 신규 졸업생들이 제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 줄고 도소매업, 음식숙박업에 취업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2008년 전문계고 신규 졸업생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30,036명 가운데 55%, 전문계 졸업생 마지막 해인 2013년에 50%를 기록하였지만 2017년 특성화고 신규 졸업생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47,946명 중 41%까지 낮아짐.
 - 반면 음식숙박업 취업자 비중은 2008년 3%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신규 졸업생 취업자의 10%가 음식숙박업 취업자였음.

[그림 2] 전문계고 및 특성화고 신규 졸업생 중 취업자 주요 산업별 구성비 변화

(단위 : %)



자료 : 한국교육개발원, 「교육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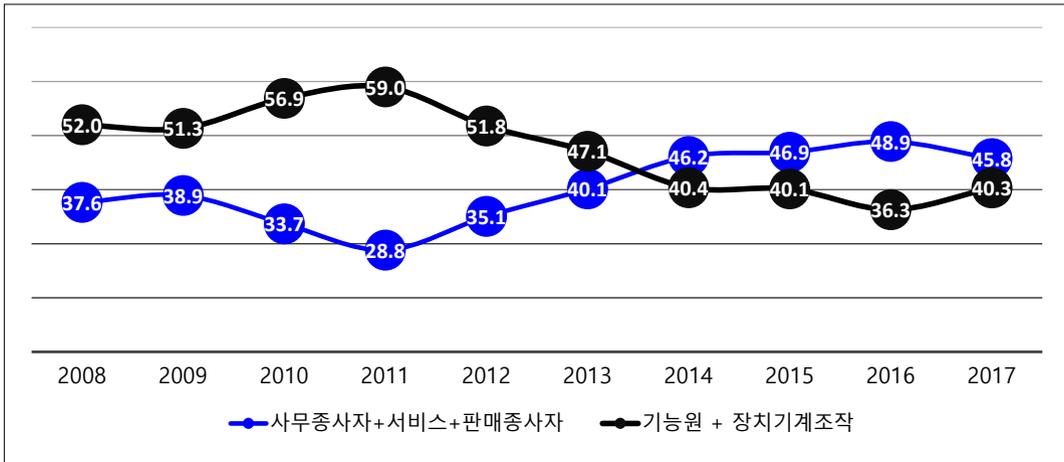
- 같은 기간 직종별로 살펴보면,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, 장치·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 제조업 관련 직종의 취업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사무종사자, 서비스종사자, 판매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
- 경제활동인구조사상으로 2017년도(1~11월 평균) 상농공수산계열²⁾ 신규 졸업생³⁾ 중 제

2)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교 졸업생의 교육계열을 '인문계열', '예술·체육계열', '상공농수산계열 등'으로 구분하고 있고 상공농수산계열 등 중 대부분이 특성화고에 해당함.

조업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, 제조업에서는 상용직(72.8%)이 대부분인 반면, 음식숙박업은 임시·일용직(77.6%)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.

[그림 3] 전문계고 및 특성화고 신규 졸업생 중 취업자 주요 직종별 구성비 변화

(단위 : %)



주 : 2017년 특성화고 유형별로 학생 수 기준 공업계열이 41.8%, 상업계열이 38.2%임.
 자료 : 한국교육개발원, 「교육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- 전체 노동시장 차원에서 그 수는 작지만 비인문계고 신규 졸업생들의 음식숙박업 취업 비중 증가가 고용의 질 측면에서 크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. 더욱이 비인문계고 졸업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이수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.

(김중욱, 동향분석실 연구원)

3) 졸업연도와 조사연도가 동일한 사람으로 정의함.